박경리 초기 장편에 나타난 ‘나쁜 피’의 표상과 전후 젠더화된 스펙터클

— 『애가』, 『표류도』, 『성녀와 마녀』 읽기

박진영*

요약

1950년대는 근대화와 보수화를 함께 겪으며 여성에게 자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작동하는지 자각하게 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박경리 초기소설이 전쟁의 상흔과 전후 이행기 여성의 삶을 주로 형상화한다면, ‘피’는 이를 서사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상징 장치라 할 수 있다. ‘나쁜 피’는 전후 젠더와 관련한 사회구조 및 규범과의 관계에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가족 질서의 회복을 위해 여성을 통치하려는 국가의 통치술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시선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박경리 초기 장편에서 연애가 비극으로 치닫고 광기와 신경증이 성별화되는 것 또한 이와 관련이 깊다. ‘나쁜 피’의 상징은 개인적 운명이나 혈통의 오염이 아닌 전후의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반영하는 동시에, 도덕적 의미에서 선악의 기준의 애매성과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박경리 소설의 양공주, 전쟁미망인과 낙태 여성, 마녀는 선악의 경계를 넘는 마성적 면모뿐 아니라, 대항시선과 대항폭력을 통해 가부장제의 젠더 비대 칭성을 해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불량 여성’을 마녀로 적시하는 ‘사법관’ 앞에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일종의 불거리로서 여성에게 부과된 스펙터클에 맞서 이를 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 글은 『애가』, 『표류도』,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나쁜 피’의 표상과 재판 서사를 통해 박경리 초기 작품세계의 특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나쁜 피, 젠더화된 스펙터클, 전후 여성, 재판 서사, 마성적인 것

* 고려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불량 여성'의 성 담론과 낙인찍기
3. 전후 젠더화된 스펙터클과 재판 서사
4. 선악의 해체적 사유와 마성적인 것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박경리 초기 장편에 나타난 '나쁜 피'의 상징을 통해 전후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살핀 후, 가부장제 시선 체제에 저항하며 마성적인 것을 표출하는 여성 캐릭터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판 서사를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불거리로서의 스펙터클의 요소가 소설에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살핌으로써 박경리 초기 문학세계의 특징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계산」(1955), 「흑흑백백」(1956)이 《현대문학》에 추천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박경리는 첫 장편 『애가』(1958)로부터 『표류도』(1959), 『성녀와 마녀』(1960)를 연달아 연재하며 단편 창작에서 장편으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박경리는 이 시기 다수의 신문연재소설을 왕성하게 창작했지만, 이들은 그동안 대중적인 연애소설로 저평가되거나 작가의 생계 수단 정도로 치부되어 오랜 기간 연구에서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멜로드라마의 표층구조 이면에서 가부장적 사회와의 갈등관계에 있는 여성의 욕망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¹⁾ 『애가』, 『표류도』, 『성녀와 마녀』는 실제 양공주, 미혼모 전

1) 박경리 문학연구에서 초기 장편은 그동안 주로 대중적인 연애소설의 특징을 중심으로 조명되거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여성문학연구』 50, 2020; 김예니, 「박경리 초기소설

쟁미망인, 요부·탕녀의 피를 지닌 마녀를 주인공으로, 전후 이행기 여성의 삶과 젠더 규율을 날카롭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²⁾

전후의 한국사회는 전쟁으로 파괴된 질서를 가정·사회·국가의 전 영역에서 회복하려는 재건의지를 기본 동력으로 하는 한편, 서구의 자유와 평등사상에 토대한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빈번했음에도 남녀 위계화는 여전히, 여성의 권리와 독립성의 인정은 아직 시기적으로 요원한 시점이었다. 더욱이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의복, 행동, 신체 등이 대중의 눈을 사로잡는 세간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여성의 이미지와 그 재현은 공적 이슈가 되기에 이른 다.³⁾ 여성의 몸과 결부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당대의 댄스열풍과 영화·

에 나타난 주체화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 47, 2019; 김예니, 「박경리 초기 연애소설 속 여성 인물의 변화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70, 2021;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역」, 『인문학연구』 47, 2014; 김은하, 「포스트 한국 전쟁과 여성적 송고의 글쓰기」, 『아시아여성연구』 56(1), 2017; 김은하, 「젠더화된 국가 재건과 잃어버린 열정」, 『비교문화연구』 57, 2019.12;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성 담론 수정 양상 읽기」, 『여성문학연구』 17, 2007; 홍순애, 「1950년대 소설에 재현된 '법'과 '젠더 정치학': 박경리 소설 『표류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4, 2018.

2) 50년대 문학연구 전반에서 아프레걸 담론을 중심으로 양질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후의 젠더 규범과 여성의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박경리 소설의 여성인물은 전후의 시대사적·문화적 의미가 짙게 투영된 '아프레걸'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댄스와 같은 미국식 문물의 유행에 민감했던 '자유부인'과도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아프레걸이 전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있는 여성뿐 아니라 양공주, 자유부인, 팜프 파탈, 여학생 등 다양한 유행을 포함하는 범칭의 용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차이점이 그리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경리의 여성들은 아프레걸에 덧씌워진 프레임으로서 성적 방종과 일탈, 퇴폐와 향락, 허영심의 측면보다는 전후에 강화된 가부장제 질서에 대한 비순응의 태도를 두드러지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나쁜 피', '마녀'의 형상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3) 전쟁의 폐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점에서 전후 여성은 댄스 열풍, 계의 활성화, 서구 복식의 확산 속에 대중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데 그 바탕에는 새롭게 유입된 미국문화의 영향력이 존재한다. 이때 선진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그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간주되는 여성에 대해 갖는 감정으로도 이어졌다 할 수 있다.(이임하,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해문집, 2004, 91면 참조)

음· 잡지 등의 활성화와 맞물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피’인가. 피는 다양한 상징성을 갖는 기호이다.⁴⁾ 그것은 일반적으로 혈연·혈통과 같은 생물학적 의미는 물론 삶과 죽음, 경외심, 저항정신 등을 표현한다. 피는 피를 흘리는 상황과 그 구체적 형상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되는데 희생 제의를 통한 신성함뿐만 아니라 오물·점액질·분비물의 불결함을 상징하거나, 공동의 유대기반을 강조하는 한편 배제와 차별의 의미가 얽히게 되기도 한다.⁵⁾ 이밖에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가시화되는 물질로, 붉은색의 강렬함만큼이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상이다. 고통과 상처를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시각적 질료인 것이다.

박경리 소설에서 피는 단순한 소재가 아닌 중요한 상징 장치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전쟁 및 살인·피살의 극적 사건을 통해 직접 현현할 때도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의지, 생명력 등 내면세계를 재현하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나쁜 피’를 통해 여성인물의 타락과 불온성은 물론 스펙터클의 요소를 구현한다는 점이다. 광경, 공연, 볼거리, 연출된 것, 이벤트, 흥행물 등을 뜻하는 스펙터클은 기 드보르에 의하면 “특별히 모든 시선과 의식을 집중시키는 영역”으로, “오직 관조의 대상”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현실세계에 대한 특화된 이미지로, “일부분만 고려된” “독자적인 가장된 세계”라 할 수 있다.⁶⁾ 가부장제가 원하는 정숙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별 짓기하고 그에 따라 여성성을 배치, 통치하는 데 있어 ‘피’는 핵심적인 기호에 자리한다.

『표류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현회의 재판이 사법적인 스펙터클의

4) 피의 상징성과 관련해 다음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이지하, 「국문장편 속 ‘피’의 표상과 서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55, 2019; 염운옥, 『낙인찍힌 몸』, 돌베개, 2019;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로즈 조지, 김정아 역, 『5리터의 피』, 한빛비즈, 2021.

5) 피에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좋고 나쁨, 순수함과 더러움 등의 의미가 부착된 것은 근대의 인종 개념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염운옥, 앞의 책, 25면 참조)

6) 기 드보르, 유재홍 역, 『스펙터클의 사회』, 울력, 2023, 14-15면.

예라면, 낙태 후 거리의 여성이 되고 광기 속에 병감에서 자살하는 광희는 비체화된 스펙터클의 예이다. 범법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분리된 이들은 징벌로서의 스펙터클을 잘 보여준다. 한편 『애가』의 진수는 '피'의 수사를 통해 양공주의 낙인찍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성녀와 마녀』에서 저명한 외과의 안원석이 형숙에게 국주의 “요부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그 자체 폭력적인 스캔들이 된다.

세 작품에는 이처럼 일종의 불거리 내지 남성적 시선의 소비품이 된 여성이 대거 등장한다. '나쁜 피'의 상징의 활용은 작가 박경리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전후 이행기 '문제적' 여성의 대상화를 넘어 사회체제와 길항하는 고유한 방식을 표상하는 기호라는 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이 글은 '나쁜 피'의 상징성을 통해 박경리 작품세계의 특징을 재구하고자 한다. 이는 그의 초기 장편 3부작에 해당하는 『애가』, 『표류도』, 『성녀와 마녀』의 의미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전후 여성에 대한 시선, 권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작업이 되리라 본다.⁷⁾

2. '불량 여성'의 성 담론과 낙인찍기

『애가』, 『표류도』, 『성녀와 마녀』에서 '피'는 전쟁, 혈연관계, 삶과 죽음 같은 보편적 상징뿐만 아니라, 젠더화된 의미를 띠고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지 여성이 주인공, 서술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경리 초기소설에서 피는 젠더와 관련한 사회구조와 규범을 압축하는 기호에 위치한다.⁸⁾ 피는 여성 젠더를 둘러싼 피살과 살인 등의 극적 사건

7) 작품의 인용은 『애가』(다산책방, 2023), 『표류도』(마로니에북스, 2013), 『성녀와 마녀』(마로니에북스, 2019)에 의해 면수만 표기함.

8) 가령 『표류도』의 현희가 청동 화병으로 최강사의 뒤통수를 가격할 때조차 최강사의 피는 직

뿐만 아니라, 전후 이행기 여성 삶의 형상화에 있어 핵심적인 서사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먼저, 『애가』의 진수는 피난지 부산에서 자신을 연모한 미군장교 제임스와의 원치 않는 동거로 ‘양공주’의 낙인을 얻게 된 여성이다.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양공주는 주지하다시피 50년대의 가장 비천한 직업군의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성의식 부재의 증표이자 대표적인 사회적 멸시 대상으로 재현되어 왔다. 진수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임도 불구하고 양공주의 꼬리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설희는 민호에게 “구태여 이름을 붙인다면 양공주가요?”라고 “머뭇거”(115면)리며 묻는다. 이때 눈여겨볼 것은 작가가 다음과 같이 ‘피’의 수사를 통해 낙인의 위력과 원천⁹⁾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 고개를 넘어 얼마를 가면 거기에 미인부대가 있고, 나와 같은 여자들이 부대 부근에 산다. 그네들의 이름은 양공주, (...) **그네들은 마치 옛날, 낙인이 찍혔던 종파도 같이 슬픈 이력을 갖고 있고, 무서운 천형(天刑)을 받은 문둥이와도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몸뚱어리를 갖고 있다.** 그들은 도저히 성한 사람들 속에 끼어 살 수 없는 인종인 것이다. 그렇다! 나도 그들과 같이 성한 사람들이 사는 테두리 밖으로 밀려 나온 인간이 아니냐!’ (...) 한번 찍힌 그 더러운 낙인이 사라질 리는 없다. (...) 너가 무슨 연애냐! **우스꽝스러운 피에로!** 피에로야, 아아, 너 진수!(『애가』, 46-47면)

진수는 기지춘 여성과 마찬가지로 재앙, 악, 천형을 환기하는 질병의

접 묘사되지 않는 대신 현희의 분노는 “광포한 피”(230면)로 표현된다.

- 9) 낙인은 “사회적 규범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소외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그 대상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배 질서에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피부색, 종교, 빈곤, 성별, 질환, 정신장애, 기형, 강간 피해, 혼외 출산, 심지어 이혼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불명예스러운 정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로이 리처드 그린커, 정혜영 역, 『정상은 없다』, 메멘토, 2022, 12-13면)

기호가 덧씌워진 채 “성한 사람들”과 분리된다. 나병이 통상 모욕과 수치 감뿐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을 야기하는 질병이어 왔다면,¹⁰⁾ “문둥이와도 같은 피”는 인간의 몸속 깊숙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식에 기반해 영속성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피’는 이때 그러한 인식의 허구성, 즉 편견과 차별을 낳는 순혈주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매개물이 된다. 진수가 연애라는 사적 감정에서도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다른 “인종”이 될 때, 피는 그러한 불합리를 근본적인 것, 본래의 것으로 정당화하는 기표로 자리하는 것이다.

진수는 또한 이민호와 강영구 등에게 억제되지 않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불길하며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그는 아름답지만 가장 슬픈 이름의 여성, “테두리 밖으로 밀려 나온 인간”이되 남성을 매혹하는 두려운 대상이다. 박경리는 ‘양공주’의 표상을 통해 그러한 젠더 규율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진수는 질병보균자처럼 분리되어야 할 낙인찍힌 자일 뿐 아니라, 남성을 위한 뮤즈 내지는 구원자로서의 환상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사회·국가의 근간으로서 가정의 확립이라는 전후 사회의 시대적 요청과는 멀리 동떨어진 지점에서 상처받은 남성을 위로하는 한편, 고립의 상태를 넘어 기성의 가치체계에 균열을 가한다. 그가 소설 결말에서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한국을 떠날 때, 이는 도피의 의미보다는 위반의 고유성을 구성하는 계기로 읽힌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가부장제 규율로부터의 탈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국가주의와 가부장제가 강력히 결합해 있던 전후 사회에서 양공주가

10) 질병 가운데 나병은 “집단적 재앙, 악, 천벌을 나타내는 최고의 본보기”(수전 손택,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176면)라 할 수 있다. 나병은 죽음을 가져오는 경우가 드물 뿐 아니라 감염되기도 매우 어렵지만 기이하게도 가장 낙인찍힌 질병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가장 무시무시한 병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 외에도 인간성을 말살하고 그 증세가 매우 모욕적이라고 생각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같은 책, 168-169면 참조)

흔히 오염되고 훼손된 여성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어 왔다면, 박경리는 위의 인용문에서 양공주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묘사를 넘어, 낙인찍힌 자의 자기인식과 자아상을 표현한다. “피에로”가 바로 그것이다. 가장(假裝)을 한 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이중성의 존재, ‘목소리’가 소거된 채 몸짓과 표정으로 연기할 뿐인 피에로가 그러하듯이, 진수는 현실의 억압성을 폭로하는 증언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작가는 이와 관련해 개인을 구속하는 집단의 힘이 막강할 때,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도 전성이 차단된 상황 자체를 부각시킨다. 이는 소설에서 또한 “인형극”(225면), “이방인”(323면) 의식으로 이어져 현실의 부조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애가』(1958)는 이렇듯 전쟁이 끝났어도 여전히 고통 받는 여성과 거짓 가치로 잠식된 사회상을 조명한다. 50년대 후반은 전쟁의 폐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고 안정화되는 동시에 자유, 평등의 근대적 가치의 유입으로 지적·정신적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한 때였다. 하지만 전환기를 맞이해 가부장적 시선이 보다 강화되고 젠더 규범이 보수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전쟁의 영향으로 여성은 과거에 비해 일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는 표면적 변화일 뿐 근본적이지 않았다. 박경리는 전쟁기 한국사회가 고안해낸 젠더 표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한 채 여성을 철저한 수동성에 머무르게 하는 전략임을 보여준다.¹¹⁾

이밖에 “이십 세기의 과학자”(27면) 안박사에 의해 요부, 탕녀의 피가 흐르는 여성으로 진단되는 형숙(『성녀와 마녀』) 외에, 현희(『표류도』)는

11) “포스트 한국전쟁 체제에서 여성은 전시 폭력의 트라우마를 시민사회 속에서 공감받고 치유하기는커녕 이미 더럽혀졌거나 전쟁과 함께 확산된 아메리카니즘의 영향 속에 전통적 순결미를 잃고 “창부”처럼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로 변질된 혐오 대상으로 지배 문화에 의해 포착되”기에 이른다.(김은하, 「포스트 한국전쟁과 여성적 숭고의 글쓰기」, 『아시아여성연구』 56(1), 2017, 46면)

사생아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난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성의 표본이 된다.

① “더욱이 피를 운운하시는 것은 고루한 말씀입니다.” (… “형숙의 혈관을 흐르는 피는 분명히 나쁘다.” (… “형숙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에게는 어미의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 무서운 탕녀, 요부의 피가 딸이다.”(『성녀와 마녀』, 29-30면)

② “그렇지만 쫓겨난 직접적인 원인은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것이에요.” (… “전 사생아를 낳았거든요.” (… “혼인 수속도 하지 않고 애기를 낳았단 말예요.” (… “아이아버지는 전쟁 때 죽어버렸거든요!”(『표류도』, 33면)

안박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이지만, 과거 형숙의 친모 국주에게 매혹되어 재산을 탕진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형숙의 피가 나쁘다”(27면)고 단정을 한다.¹²⁾ 현희는 또한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전쟁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축출당한다. 작가는 이외에도 현희에게 여러 겹의 ‘비난’의 표지—대학 시절의 동거, 결혼을 한 상현과의 연애, 다방 마담의 직업—를 부과해 전후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상을 역으로 반사한다.

세 장편에서 양공주, 요부, 미혼모는 ‘정숙하지 못한’ 여성, ‘타락한’ 여성의 레페르를 갖는다. 전후 아프레걸 담론이 보여주듯, 이러한 이름표 붙이기는 자연스럽거나 필연적인 규정이 아닌 만큼 한 사회의 체계화된 이념의 산물임에 분명하다. 전쟁으로 해체된 가족의 회복과 국가 재건이 중요했던 시기, 이를 위한 ‘여성적 가치’의 강조와 함께 기존의 천사/악녀,

12) 국주·형숙의 모계 혈통이 자신과 아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은 “부계(父系) 가부장적 가계 질서에 대한 위협”을 잘 보여준다.(김은경, 『박경리 문학과 젠더』, 마로니에북스, 2018, 53면 참조)

양처/요부가 표상하는 가부장제에의 순응과 저항 사이에 더욱 엄격한 구별 짓기가 요청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1955년 국무회의에서 제정된 ‘어머니날’¹³⁾과 같은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박인수 사건(1955.6)은 그러한 시대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여성의 합법적 지위가 공동체 내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로 승인받는 데서 출발한다면, 진수·형숙·현희는 아내도 어머니도 될 수 없는 자의 공통점을 갖는다.

나아가 박경리는 사회적 통념상 평가 절하되어 있는 여성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인공유산, 낙태가 그러하다. 전후 시기의 여성성이 “보호해야 할 정숙한 섹슈얼리티와 비난받아 마땅한 타락한 섹슈얼리티로 서열화”¹⁴⁾되었다면, 『표류도』의 광희는 그러한 성도덕의 이중 잣대를 적실히 체현한다. 다방 레지로 일하는 그는 소설 시작 부분에서 “과실 같은 향취”의 “신선한 능금을 연상케 하는 소녀”(10면)로 묘사되지만, 민우와의 연애에서 낙태를 하고 창녀가 되고 만다. “그렇게 정결했던” 그녀가 “악취를 발산하”며 “점점 썩어가”(244면)는 존재로 전락하는 데 있어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낙태이다.

『표류도』에서 그것은 연애 서사에 수반되는 통속적인 서브플롯이 아닌 중요한 서사적 전환점으로 기능한다.¹⁵⁾ 광희는 임신 사실을 안 후 현희에게 “죽는 것이 옳아요? 사는 것이 옳아요?”(169면)라고 묻는다. 그리고 이

13) ‘어머니날’은 ‘어머니의 끊임없는 인내와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기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50년대 ‘어머니날’은 미망인 특히, 전쟁미망인으로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교육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어머니, 3명 이상의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어머니, 10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 등에게 상을 주”기도 했다.(이달의 기록, 국가기록포털,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14) 이성숙,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책세상, 2009, 32면.

15) 그것은 광희뿐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충고하고 병원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한 현희에게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다. 광희의 낙태 직후, 현희는 이상현이 어동생과 함께 다정히 있는 모습을 그의 아내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질투 어린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그 감정의 소산에 이르지 못한 채 최강사의 부당한 언사로 인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다.

후 낙태의 충격과 민우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변화를 보인다.

광희는 그 일이 있는 다음 영 사람이 변해버렸다. 상대가 남자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교태를 부린다. 방약무인의, 오히려 동물적인 도전을 삼가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는 광희의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손님들은 의아하게 쳐다보고 고개를 가웃거렸으나 차차 흥미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광희는 행동은 확실히 의식적인 것이며 고의적이다.**(『표류도』, 180면)

출산은 여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사건으로 인정되지만, 낙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러하다. 위의 인용문은 성, 임신, 출산과 관련해 가부장제 내에서 용인되는 정숙한 여성상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보여준다. 수술 후 광희는 월남하기 전 이북에서의 어머니와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는 한편, 현희에게 “경멸하죠? 저를 경멸하죠?”, “눈들이 무서워요. 아주머니는 저의 천한 꼴을 보셨어요.”(178면)라고 말한다. 순결과 모성이데올로기는 전후에 국한되지 않는 규범이 되, 광희의 급작스러운 변모는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 여성 훈육 기제였는지를 드러낸다.¹⁶⁾

박경리는 성적 품행이 ‘불량한 일군의 여성을 통해 전후의 젠더 규율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여성혐오와 낙인의 서사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박경리 소설은 젠더 질서의 재편 과정을 여성주의적 시선에서 통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혈맹이자 점령군이었던 미군에 대한 거부함과 좌절감”¹⁷⁾ 속에 양공주가 남성 중심적인 국가적 콤플렉스의 유발 대상이

16) 낙태는 정조의 문제와 맞물려 그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대표적 낙인의 예다. 그것은 개인 선택에 따른 행위이지만 그 의미의 구성 방식은 그렇지 않다. 공격 차원을 둘러싸고 낙인이 만들어질 뿐 아니라, 가부장제 담론과 긴밀히 결합해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적 방종이 부각되어 낙태 자체보다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나쁜 임신’이 비난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이은진,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포스트식민 한국 사회의 법제, 정책, 담론 검토」, 『페미니즘연구』 17(2), 2017, 10-11면 참조)

었다면, 미혼모 미망인과 낙태 여성은 전후 사회가 회복해야 할 가부장제 질서에 반하는 '통제되지 않는' 여성의 전형이었다 할 수 있다. 50년대 중반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박경리는 이렇듯 국가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하고, 상실된 남성성의 회복을 위해 여성의 정체성을 규율화하려는 전후 시기의 성 규범을 '나쁜 피'의 상징을 통해 형상화한다.

낙인에 수반되는 공동체로부터의 배제에 더해, '불량 여성'에 가해지는 시선의 무게는 이들을 전시의 대상으로 포획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다음 장에서는 여성 비체화와 재판 서사를 중심으로 '나쁜 피'의 심층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3. 전후 젠더화된 스펙터클과 재판 서사

박경리 초기 장편은 대중적 연애소설의 구조를 갖지만, 작품에 빈번한 결혼 장애 및 연애 실패 모티프¹⁸⁾는 통속적인 멜로드라마의 형태로(만) 다뤄지지 않는다. 연애와 사랑은 개인의 사적 감정이자 사회문화적 담론의 구성 요소로, 사회를 진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장편에서 눈여겨볼 것은 그것이 전후의 젠더화된 비대칭성, 불균등한 성역할과 위계 구도를 재현하는 서사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먼저 살필 것은, 여성인물이 비체(subject)가 되어야 연애가 종결되는 서사적 특징이다. 가부장제에 위협이 되는 여성의 연애는 과거로부터 일종의 불거리, 가십, 연극적 광경으로 주어져 사회적 시선의

17) 엄운옥, 앞의 책, 328면.

18) 가령 진수와 민호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진수가 지닌 양공주의 꼬리표 때문에 설희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고(『애가』), 상현과 현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연애를 하다가 현희의 살인 사건으로 파탄에 이르며(『표류도』), 형숙과 수영은 안박사의 결혼 반대로 정작 불륜관계가 되어 버리고 형숙의 죽음으로 소설이 마무리된다(『성녀와 마녀』).

소비품이 되어왔지만, 박경리 소설에서 비체와 주체는 성별에 대응하는 사건이 된다. 여성이 '위협'을 맡는 대신 남성은 '모험'에 배당되듯이, 생식과 출산, 성병, 피가 주로 여성의 몫이라면 이질성, 비천함은 여성의 몸에 자연스럽게 들러붙는다. "악질의 성병을 몸에 지니게"(243면) 된 광희도 그러하지만, 형숙은 다음과 같이 "벌죽벌죽" 피를 내뿜는 비체가 된다.

① 광희는 식은땀을 철철 흘리며 흡사 미치광이처럼 발작을 했다./ "광희, 뺨이 어땀어? 한 마리도 없다. 정신 차려!" (...) 그러나 광희는 사나운 짐승처럼 이빨을 내보이며 나의 앞가슴을 잡아 뜯는다. (...) **촛불에 나래를 태운 한 마리의 파리처럼 광희는 굴러 있다.** 이 일이 있는 후 광희는 빈번히 그런 발작을 일으켰다.(『표류도』, 251-252면)

② 안 박사는 (...) 젊은 의사를 밀어내고 피투성이가 된 형숙 앞에 가서 우뚝 멈추어 섰다. **한참 내려다보고 서 있던 안 박사는 형숙의 앞가슴을 헤쳤다. 총구멍! 벌죽벌죽 피가 솟구쳐 나온다.** 가망이 없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성녀와 마녀』, 269면)

광희의 몸이 오염과 타락을 집체화하는 성별화된 상징이라면, 관조의 대상에 불과한 형숙은 편파적으로 관찰된 여성 표상에 부합한다. ①은 광희의 발작 장면으로, 보잘것없는 구경거리로 전락한 그는 사물화된 존재, "시궁창 속의 구더기처럼 득실득실 끓고 있는", "완전히 씹어버리게 내버려두"(252면)어야 할 대상이 된다. ②는 정보기관원 유현준이 쏜 총을 형숙이 대신 맞고 죽어가는 장면으로, 형숙은 수영을 사랑하기에 과국을 맞는다. 반면 "난 형숙이 없인 못 살아.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201면)라고 했던 수영은 아이러니하게도 형숙의 희생으로 산다.

이렇듯 악취, 부패, 불결함이 달라붙어 오물이 된 신체는 박경리 소설에서 성별화된(gendered) 사건이 된다. 그렇다면 '나쁜 피'는 과연 희생제의를 통해 '성스러운 피'가 되는가. 박경리는 죽음을 담보로 무기력과

무의미의 대가를 치러야만 사회가 인정하는 ‘성녀’가 될 수 있음을 폭로한다. 형숙이 내뱉는 ‘피’는 고통을 낳는 사회적 상황을 덮어 감추지 않고 이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¹⁹⁾ 육체에 각인된 고통으로써 젠더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주체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 박경리 소설에서 ‘사법관’을 자처하는 것은 지배 질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남성 인물들이다. 앞서 보았듯 안박사는 피투성이가 된 형숙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총구멍을 헤쳐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최종화한다. 가부장제의 검열관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에는 『표류도』의 검사가 있다. 남성적 응시의 폭력성은 다음과 같이 초점화된다.

정월도 중순에 접어들 무렵 검사의 취조를 받기 위하여 검찰청에 출두했다. 찬물이 도는 듯 냉철한 검사의 눈을 보았을 때 나는 어쩐지 등허리에 찬 것이 쭉 끼치는 것을 느꼈다. 그 눈은 작년 여름에 광희가 낙태수술을 하러 갔을 때 본 그 의사의 눈과 흡사했다. 왜 그렇게 관련을 시켰는지 모르겠다. (『표류도』, 253면)

의사, 검사는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을 타락한 여성, 정숙하지 못한 살인자로 규정짓는다. 이들에 의해 혐오가 씌워진 채 외부화되는 존재는 남성을 유혹하고 회롱하는 여성, 낙태 후 남성에게 복수를 가하는 여성, 남성에 대한 위협과 함께 기성의 권위에 저항하는 여성들이다.²⁰⁾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진수, 형숙, 현희·광희는 관음증의 대상을 넘어 대중의 눈을 사로잡는 스펙터클(spectacle)이 된다. 스펙터클은 ‘구경꾼’ 내지 ‘수동적 수용자’가 되어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함축하는 말로,²¹⁾

19) 한병철, 이재영 역, 『고통 없는 사회』, 김영사, 2021, 23면 참조.

20) 이와 관련해 안박사가 국주·형숙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들의 ‘나쁜 피’에 대한 자기 보호본능이라고만 볼 수 없다. 박경리 소설의 여성들이 니체적 의미에서 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 긍정의 춤을 추는 디오니소스를 닮아있다면, 삶에 내재한 비극적 심연을 지켜보는 지극히 ‘이성적인’ 인물은 비이성적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²²⁾를 지시한다. 불거리로 치환된 그것은 특히 인간소외를 낳고 진실과 거짓 사이의 경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매개된 관계를 감추고 이미지만이 전면화될 때, 그 이면의 젠더 비대칭 구조가 은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표류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법의 문제, 재판 서사 모티프를 살필 수 있다. 박경리는 소설 후반부에서 공판 과정을 공들여 묘사하는데 이는 공개적 전시효과를 염두에 두고 서술된다. 그것은 현회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의식이라기보다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대중 앞에 공고히 하는 사회적 기소와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현회의 재판은 나아가 종교재판관/마녀, 정신분석가/히스테리 환자의 관계를 재현하는 장치로 읽을 수 있다. 중세와 근대의 마녀가 여성의 사회적 권능을 파괴할 목적으로 참혹한 공포 속에 말도 안 되는 기소를 당하고 끔찍한 고문을 받으며 공개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다면,²³⁾ 전후 사회의 공격 공간에서 현회의 재판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유혹하면서도 혐오의 대상으로 타자화되는”²⁴⁾ 스펙터클이 된다. 현회는 “이 사건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대문짝처럼 내 사진이 났을 것을 생각해본다.”(235면) 소설에서 그것은 실제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으로 다뤄지는데, 상현의 부인 양수정이 재판장에 방청객으로 오자 현회는 놀라며 “저를 구경하러 오셨군요.”(259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이때의 재판은 정숙한 여성의 사회적 책무를 받아들이게 하는 공론의 장이자, 그러한 통치에 반하는 욕망과 행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그 차단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²⁵⁾ 검사는 피고에 대

21) 박치완, 「스펙타클의 지배와 인간의 (자기) 소외」, 『철학연구』 33, 2007 참조.

22) 기 드보르, 앞의 책, 15면.

23) 실비아 페테리치, 신지영 외 역,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갈무리, 2023, 71면.

24) 임옥희 외, 『우리 시대의 마녀』, 여이연, 2023, 85면.

25) “여자들이 권력 체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려고 하면 악마의 음모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범

한 증거를 제시, 심판하는 과정에서 현회가 ‘반사회적 천성’을 지녔다는 논고를 한다.²⁶⁾ 안박사와 마찬가지로, 그는 현회의 인격과 존엄을 다음과 같이 비논리적으로 판별한다. 『성녀와 마녀』에서 형숙이 수영을 과멸시킬 거라는 안박사의 예언이 전도됨으로써 그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면, 『표류도』의 검사 역시 다르지 않다.

검사는 나에게 과거 사생아를 낳은 일에 대하여 추궁했고, 그러한 과거와 다방의 마담이라는 직업에 비추어볼 때 최 강사의 모욕적인 언사가 참기 어려웠다는 것, 그리고 그를 죽이고 싶을 만치 노여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했다.(『표류도』, 253면)

“야합을 해서 사생아까지 낳”(255면)은 마담은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할 여성이 아니라는 시각은 박인수 사건(1955)을 떠올리게 한다. 정조 관념이 없는 여성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여성이라고 규정한 판결문처럼,²⁷⁾ 위의 인용문은 젊은 미망인의 섹슈얼리티가 전후 사회에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시사해준다.²⁸⁾ 양공주와 함께, 미혼모·미망인·마

죄’를 과장해 끔찍한 처벌을 정당화하면, 사회 전체를 효과적으로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희생자들이 고립되고, 저항의 열의가 꺾이는 것이 다음 수순이다.”(실비아 페데리치, 앞의 책, 72면)

26) 공관 선고에서 그는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무비판이라는 것, 그것은 사회질서에 대한 일종의 반항의 표시이며, 개전의 빛이 추호도 없다는 것은 천성적으로 범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로 끝맺”(257면)음을 한다.

27) 박인수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법판사 권순영은 박인수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했던 송, 박 두 여성의 고소장을 취하하면서 “법은 정조라고 하여 모두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의 이상에 비추어 가치가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는 정조만을 법은 보호한다. 정숙한 여성의 건전한 정조만을 법은 보호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이정희, 「전후의 성담론 연구」, 『담론 201』 8(2), 2005, 204면)

28) 미망인은 남성들에 의해 ‘깨어진 그릇’, ‘불장난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같은 여성에 의해 이단자 취급을 받기도 했다.(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 『근대를 다시 읽는다1』, 역사비평사, 2008, 452면) 현회를 향한 멸시와 모욕은 소설에서 남성뿐 아니라 동창생 모임에서도 반복된다.

담은 50년대의 대표적인 타자의 증표였다. 최강사가 현회를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드러나듯, 전후 사회는 성차를 확고히 단속통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성적 규제의 대상 내지는 농락의 대상으로 비취진다. 재판 서사는 궁극적으로 '마녀'를 외부화하는 국가 통치술을 보여주는 셈이다.

서구의 마녀사냥이 근대 이행기 자본의 원시축적을 위해 자행되었다면, 전후 시기 가부장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성들에게 '악'의 프레임이 씌워진 것 또한 우연한 일만은 아니다. 기존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사회불안이 야기된 변동기—전쟁과 빈곤, 자본주의의 대두, 계급의 재편 등—에 사회적 속죄양으로서 마녀가 생겨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²⁹⁾ 박경리는 재판 서사를 통해 전후 이행기 시대상의 반영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녀의 침입을 차단하려는 가부장제의 동일화 전략이 분열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덧붙여, 박경리 소설의 여성 인물은 스펙터클 연기의 귀재들이라 할 수 있다.³⁰⁾ 이들은 마녀, 히스테리 환자가 그러하듯 “무대이자 공연자로 자신의 신체를 스펙터클로 만”들고 “관객들을 매혹하여 공포와 연민, 욕지와 굴욕을 불러일으”³¹⁾킨다. 이때 상연되는 전시물은 가부장제 남성이 은밀히 보기를 원하는 욕망의 구현물인 동시에, 그 질서의 유지 및 결속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단죄·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현회는 악행을 행한 죄인이되 사법에서 '참된' 말을 함으로써 재판 권력의 전복을 시도한다. 마녀의 탄생 배경의 하나가 그가 대중 앞에 스펙터클이 되는 것 자체에 있다면, 발화의 권력을 성찰하며 검사의 심문 앞에 공적 발화를 수행하는 현회는 스펙터클의 요소를 역으

29) 관습과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심각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자 선악의 엄격한 구분을 강요하고 마녀를 박해했던 역사적 전례가 그것이다.(이케가미 슌이치, 김성기 역, 『마녀와 성녀』, 창해, 2005, 58면 참조)

30) 임옥희 외, 앞의 책, 85면.

31) 위의 책, 75면.

로 이용한다 할 수 있다.

4. 선악의 해체적 사유와 마성적인 것

시선의 상호성은 인간의 기본조건이되 이는 단순히 바라보고 보여지는 관계의 교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존 버거에 의하면 “시각의 상호작용적 성격은 대화의 상호작용보다 더 근본적인 것”³²⁾으로, 우리가 대상을 보는 방식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³³⁾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식 체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여성의 재현 역시 하나의 ‘보는 방식’(a way of seeing)으로 젠더 관념이 투영된 시각적 구성물임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해 박경리 소설의 흥미로운 점은 남성이 여성에게서 보기를 원하는(원하지 않는) 여성상뿐 아니라, 이러한 ‘보는 방식’을 전도하는 다양한 시선을 다층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먼저 여성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선의 예로, 대립을 통해 작동해 온 특정한 사유 과정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① 영옥이 악과 관능과 그리고 동정의 대상이라면 설희는 선과 정신과 그리고 숭배의 대상인 것이다.(『애가』, 249면)

② “하란 씨는 얼굴이 곱겠다, 마음씨가 착하겠다, 장차 현숙한 부인이 될 자질은 백 퍼센트, 형숙이야 그건 요부형이지.”(『성녀와 마녀』, 58면)

③ 그들은 그들이다. 계영과 순재와 그리고 상현 씨의 어엿한 부인, 그런 요조숙녀들이 손을 잡은 동그라미 속에 상현 씨는 서 있는 것이다. 짐작은 모습으로.(『표류도』, 72면)

32) 존 버거, 최민 역, 『다른 방식으로 보기』, 열화당, 2017, 11면.

33) 위의 책, 10면.

인용문은 여성 재현의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가령 『애가』의 진도유망한 의사 이민호는 진수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녀를 “마력을 가진 요부”(148면), “나를 배반한 무서운 독부”(222면)로밖에 보지 못한다. 그의 독백—“그렇게 순결하게 보이던 진수. 그러나, 그는 (…) 틀림없는 요부였다.”(68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순결한 여성 아니면 요부이며 여성성은 손쉽게 전유·배제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유형화는 여성 내에서도 발견된다. ③의 계영과 순재, 수정은 ‘요조숙녀’의 구별을 강화해 여성 내부에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다. 가부장제 이념을 내면화한 여성은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경리 소설에는 또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독자적 면모가 중점적으로 제시된다. 자신의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일탈을 꿈꾸는 이들은 일과 가족관계, 결혼과 출산 등에서 수동적 타자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작가는 특히 기존의 이데올로기 체계에 포획되지 않은 채 주체적으로 사랑을 성취하는 여성을 초점화한다. 애정과 정조는 이들에게 있어 성적 품행이 아닌 고유한 감정과 권리의 문제이다. 현회는 수치심 없이 동거를 선택하고, 미혼모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다. 상현과의 불륜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정절보다도 ‘위대한 배덕(背德)’으로 인식된다. 이뿐 아니라, 현회의 분신에 해당하는 광희는 “사막에 피는 사보텐의 꽃처럼 지독하게 강렬한”(127면) 사랑을 한다. 사랑의 예술을 믿는 이들은 정신적이면서 동시에 육체적이고, 윤리적이진 않더라도 부도덕하지 않은 연애를 한다.

현회는 무엇보다 가부장제하에 인종의 삶을 살아온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항과 연민을 함께 느끼는 한편, 불행한 처지의 여수인들과 연대하고 낙태로 고통 받는 여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는 “연황색으로 변한 얼굴”로 “애를 뱉어요, 아주머니.”라고 말하는 광희에게 “떼어버려. 그리고 사는 거야.”(171면)라고 충고를 한다. 산파를 비롯해 피임과 낙태를 돕고 여성을 치유하는 여성이 마녀의 한 표적이어 왔다면, 현회는 훈육된 신체

를 거부하는 광희를 끝까지 돌봄으로써 그러한 역할을 자처한다.³⁴⁾ 그리고 이때 마녀는 마녀 아닌 ‘마돈나’—현희가 경영하는 다방 이름이기도 한—가 된다. 기부인이나 애인을 높여 부르는 마돈나는 현희의 젠더적 정체성을 압축하는 명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경리 소설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여성—‘성녀’는 어떻게 재현되는가.³⁵⁾ 성녀/마녀의 양극화된 여성관은 주지하다시피 여성 혐오와 여성숭배의 이율배반적 인식을 반복하는 기제일 뿐이다. 박경리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성녀는 마녀가 되고, 마녀는 성녀가 된다는 점이다.³⁶⁾ 대표적으로 『성녀와 마녀』의 서사 진행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부각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작품에서 성녀의 마녀 되기는 전략이 아니며, 마녀의 실상이 성녀인 것도 그가 남성을 위한 구원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박경리는 이러한 분류와 이름표 붙이기의 모순을 적시하고,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성녀/마녀의 대비는 여성의 평가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은 결국 ‘보는 방식’의 관념이 투영된 허위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박경리는 선과 악을 해체하는 특유의 작가적 사유를 보여준다. 그의 여성들은 종종 도덕적 가치판단을 초과하는 마성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선악의 경계 밖에서 광기와 히스테리를 표현하고, 스펙터클이 된 여성 재현에 맞서 젠더화된 숭고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류도』에서 현희의 살인은 “마(魔)의 소행”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무절

34) 앞서 보았듯 산부인과 의사가 광희를 차갑고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광희를 도와달라는 현희의 부탁에 김환태가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현희는 마치 여성의 고통이나 요구는 여성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듯 그녀를 돌본다.

35) 가부장제를 교란하지 않으며 순응적 사랑을 하는 설희(『애가』)와 하란(『성녀와 마녀』)이 대표적이다.

36) 단적으로 하란(『성녀와 마녀』)은 성녀의 이미지에서 마녀로 전화하고, 천사표 여성 설희(『애가』)는 자살을 한다. 반면 마녀 형숙은 성녀가 되고 『애가』의 또 다른 인물, 시동생 상화와 불륜이었던 영옥은 건강한 생명력의 농사꾼으로 거듭난다.

제한 욕망에 의한 악의 소행이라기보다는 “광포한 피”에 의한 마성의 결과이다. 『애가』에는 또한 원시의 바다에 이끌리는 설희의 충동과 본능이 운명처럼 암시되어 있다.

① 눈에 불을 켜고 최 강사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노려본다. (...) 눈앞에는 사람도 땅도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광포한 피가 기름처럼 지글지글 끓고 있었고, 돌아왔은 최 강사의 뒤통수만이 새까만 점이 되어 눈 속에 밀려들어 온다. (...) 마(魔)의 소행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된 일이라 믿어지지 않았다. 최 강사의 뒤통수를 겨누어 내가 청동 꽃병을 던졌다 기보다 내 손의 꽃병이 그 흑점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을까?(『표류도』, 229-231면)

② “바닷물이 쿵쿵 치는 밤, 그런 밤에 이 거릴 거닐면, 전 이상스러운 힘에 이끌려, 저 바닷속에 뛰어들어 갈 것만 같아요. 그때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힘이란 그야말로 실오라기처럼 가늘고 힘이 없는 거예요.”(『애가』, 123면)

괴테에 의하면 마성(魔性)적인 것은 도덕적 의미의 악의 부정성만을 뜻하지 않는다. 초자연적인 마성은 질서 잡힌 것, 문명과 합리를 뛰어넘는 격정과 열정에 상응한다.³⁷⁾ 그것은 “인간이나 자연에 존재하는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인간의 창조력을 고양할 수 있으면서도 세계질서를 방해하고 인간과 모든 제도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³⁸⁾ 어떤 것이다. 마성을 이렇듯 기이한 충동과 열정, 적극적 행동력과 기존의 사회규범을 뒤흔들고 파괴하는 힘으로 이해할 때,³⁹⁾ ①에서 선악 너머의 불의에 대응하는 저항성

37) 김홍기, 「괴테에서의 마성 연구」, 『괴테 연구』 15, 2003; 박은경, 「괴테의 「노벨레」에 나타난 타자화의 양상」, 『독일언어문학』 97, 2022; 이미선, 「다이몬으로서의 괴테의 메피스토펠레스」, 『헤세 연구』 38, 2017 참조.

38) 장양양, 「박경리 전후소설의 아프레걸 재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3.8, 21면.

39) 같은 곳 참조.

을 읽어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②의 “바닷물이 쿵쿵 치는 밤”의 “이상스러운 힘”에 이끌리는 설희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다.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은 존재와 무의 경계를 파괴하며, 자연과의 합일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

이렇듯 사회적 규율과 코드를 거부·해체하는 마성적인 면모는 박경리 초기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광기와 히스테리, 여성적 숭고는 전통적 관점의 진보·이성·과학이 갖는 우위성에 의해 근대의 타자로 이해되어 왔다. 그것은 근대 합리성의 신화 내지 자기 지시적 동일성에 기반한 남성적인 권력체제에서 볼 때, 불안과 동요를 낳는 초과의 열정, 통제되어야 할 비이성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당신의 정절(貞節)보다 나의 배덕(背德)이 훨씬 위대하다고 말대꾸를 하려다가 그 말을 삼켜버리고 어머니의 얼굴만 쏘아보았다. 내 자신도 눈에 무서운 광채가 번득었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표류도』, 163면)

인용문의 현희는 “무서운 광채가 번득”이는 “눈”으로 자신을 힐난하는 어머니를 쏘아본다. 이때의 ‘무서운 광채’는 가부장제 언어와 법의 규약 내에 기입될 수 없는 자신의 목소리를 현실에 각인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발화 불가능한 현실 앞에 비언어의 눈빛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현희는 “애비도 없는 훈아를 낳”았다고 어머니에게 “심한 모욕”을 당할 때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 입고 있었던 외출복 치마를 앉아서 발기발기 찢”(163면)은 적이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무언의 전략과 몸을 이용한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또한 화해와 순종이 아닌 투쟁의 주체로서의 인간상을 보여준다. 박경리 소설의 전후 여성은 ‘나쁜 피’로 차별받지만, 지배적 시선에 의해 자신을 정체화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박경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관리하는 가부장제의 감옥에서 몸으로 말하는 신경증적 주체를 통해 차단된 열정을 재현한다. 지

배 권력에 맞선 대항시선뿐 아니라, 대항폭력의 행사를 통해 고통 서술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경리는 궁극적으로 마성적인 여성 캐릭터를 통해 기존의 선악 체계에 기반한 남성 중심적 여성 재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성상을 창조함으로써 페미니즘적 전통을 갱신한 작가라 할 수 있다.

5. 나오며

1950년 후반은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사회 안정화와 함께 보수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였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어느 정도의 권리 신장이 가능했지만, 현모양처 담론이 강화되고 정조 논쟁이 활발했던 때이기도 했다. 50년대 중반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박경리는 『애가』, 『표류도』, 『성녀와 마녀』에서 '나쁜 피'와 마성적인 요소를 통해 전후 사회의 젠더 비대칭 구조를 재현한다. '나쁜 피'의 상징은 이때 피의 순수성이라는 상상체의 집착을 통해 정결/오염, 주체/비체, 선/악을 분리해 차별하고 이를 영속화하려는 성 담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양공주, 미혼모 미망인, 낙태 여성과 마녀는 가부장제 아버투스의 여성혐오와 낙인의 서사를 단지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박경리 소설의 마성적인 여성 캐릭터들은 지배적 규범에 도전하고 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합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을 통해 독립적인 존재감을 강렬히 드러낸다. 이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도전 외에도, 그 이면의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도덕적인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특히 성녀의 마녀화와 마녀의 성녀 되기는 이분법적 유형화를 넘어 그러한 여성 재현의 허구성을 강조하는 한편, 선과 악의 본연의 기준이 애매한 것임을 부각시킨다. 박경리는 결국 전쟁과 젠더재구성을 통해 과거에 비해 공고해진 젠더적 분절과 위계화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근저에서 사회적 불화와 고통을 적극 표출함으로써 고통이 하나의 언어가 되고 나아가 비판이 되는

지점을 형상화한다.

박경리의 초기작품은 여성혐오가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여성혐오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의 문학적 대응을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하다. 현실세계의 폭력적인 힘뿐만 아니라 이에 응전해 나가는 여성 주체의 힘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 장편은 이후 발표된 『김약국의 딸들』, 『파시』, 『시장과 전장』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전후의 다양한 여성상을 통해 기존의 젠더 감성과는 다른 새로운 여성 재현을 성취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본고의 문제의식을 넓혀 이후 창작된 박경리의 문학세계를 함께 고찰하는 작업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경리, 『표류도』, 마로니에북스, 2013.
_____, 『성녀와 마녀』, 마로니에북스, 2019.
_____, 『애가』, 다산책방, 2023.

2. 단행본

- 권보드레, 『아프레길 思想界를 읽다: 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대출판부, 2009.
_____,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21.
염운옥, 『낙인찍힌 몸』, 돌베개, 2019.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_____, 『계집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나』, 서해문집, 2004.
임옥희 외, 『우리 시대의 마녀』, 여이연, 2023.
토지학회 편, 『박경리 문학과 젠더』, 마로니에북스, 2018.
한병철, 이재영 역, 『고통 없는 사회』, 김영사, 2021.
기 드보르, 유재홍 역,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 2023.
로이 리처드 그린커, 정혜영 역, 『정상은 없다: 문화는 어떻게 비정상의 낙인을 만들
어내는가』, 메멘토, 2022.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실비아 페데리치, 신지영 외 역,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 갈무리, 2023.
엘렌 식수·카트린 클레망, 이봉지 역, 『새로 태어난 여성』, 나남, 2008.
이케가미 슌이치, 김성기 역, 『마녀와 성녀』, 창해, 2005.
존 버거, 최민 역, 『다른 방식으로 보기』, 열화당, 2017.

3. 논문

-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여성문학연구』 50, 2020,
177-195면.
김예니,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 47, 2019,
287-313면.
_____, 「박경리 초기 연애소설 속 여성 인물의 변화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70,

- 2021, 75-108면.
- 김원희, 「박경리 전후 장편소설의 '사랑서사' 연구」, 『비평문학』 68, 2018.6, 82-109면.
-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역」, 『인문학연구』 47, 2014, 277-301면.
- _____, 「젠더화된 국가 재건과 잃어버린 열정: 박경리의 『표류도』(1959) 다시 읽기」, 『비교문화연구』 57, 2019.12, 1-24면.
- _____, 「포스트 한국전쟁과 여성적 숭고의 글쓰기」, 『아시아여성연구』 56(1), 2017, 37-62면.
- 박창범, 「대결 및 타협의 정신과 비대칭적 사랑: 박경리 초기장편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42, 2018, 277-308면.
- 박치완, 「스펙타클의 지배와 인간의 (자기) 소외」, 『철학연구』 33, 2007, 191-224면.
- 이상진, 「운명의 패러독스, 박경리 소설의 비극적 인간상」, 『현대소설연구』 56, 2014, 373-408면.
- 이은진,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포스트식민 한국사회의 법제, 정책, 담론 검토」, 『페미니즘연구』 17(2), 2017, 3-46면.
- 이정희, 「전후의 성담론 연구」, 『담론 201』, 8(2), 2005, 193-244면.
- 이지하, 「국문장편 속 '피'의 표상과 서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55, 2019, 39-70면.
- 이혜경, 「주체의 욕망과 생명의식의 변화 양상 연구-박경리의 『표류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70, 2016, 185-216면.
- 장양양, 「박경리 전후소설의 아프레겔 재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3.8, 1-106면.
- 홍순애, 「1950년대 소설에 재현된 '법'과 '젠더 정치학': 박경리 소설 『표류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4, 2018, 151-180면.

<Abstract>

The symbolism of 'bad blood' and post-war
gendered spectacle in Park Kyung-ri's early novels
— 『Aega』, 『Pyoryu-Do』, and 『Saints and Witches』

Park, Jin-young

The 1950s was also a time when women went through modernization and conservativeization and provided opportunities for freedom to women, while realizing how limited it worked. If Park Kyung-ri's early novels mainly embody the scars of war and the lives of women in the post-war transition period, "blood" is an important symbolic device that embodies this narrative. "bad blood" comprehensively shows the state's governance and male-centered patriarchy to rule women for the restoration of the family order damaged by the war in relation to the social structure and norms. In Park Kyung-ri's early feature, it is also deeply related that love leads to tragedy and madness and neuroticism become gendered. The symbol of "bad blood" reflects the social conflict and discrimination after the war, not the contamination of personal fate or lineage, while revealing the ambiguity and instability of the essential standards of good and evil.

This thesis aims to re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world of Park Kyung-ri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bad blood" and the trial narrative in 『Aega』, 『Pyoryu-Do』, and 『Saint and Witch』.

Key Words: bad blood, gendered spectacle, postwar women, trial narrative, something demonic

투 고 일 : 2025년 2월 28일

심 사 일 : 2025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5년 3월 16일

수정마감일 : 2025년 3월 28일